

절이 축지되었다. 초음파 검사상 양쪽엽이 모두 커져있었으며 좌엽에 경계가 명확한 결절이 있어서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하였다.

도말소견상 점액성 배경에 다수의 손가락 모양의 유두상 군집과 개개로 흩어져 있는 비정형성 세포가 관찰되었다. 유두상 군집의 변연부는 핵이 울타리 모양으로 배열하고 있었다. 세포의 핵은 크고 둥글면서 변연부가 뚜렷하였고 염색질은 망상이며 뚜렷한 핵소체가 관찰되었다. 간혹 포말성 조직구와 이형성이 심한 비정형성세포 또는 다핵성거대세포도 혼재되어있었다. 육안소견상 정상적인 조직은 일부만 남아있고 대부분이 종괴로 대체되어 있었으며 절단면에서 다수의 점액이 차있는 미세낭이 관찰되었다. 조직소견상 풍부한 점액을 형성하는 선암종이 관찰되었으며 면역조직화학검사상 종양세포는 CEA 에 강양성을 보여 대장으로부터 전이된 암종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대장경검사를 시행한 결과 3개의 선종성 용종이 있었고 그중의 한개에서 상피내암이 관찰되었다.

## 18. 신경아세포종과 신경절아세포종의 세포학적 특징

### Cytologic Characteristics of Neuroblastoma and Ganglioneuroblastoma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해부병리과

이응석, 김한겸, 김인선

신경아세포종과 신경절아세포종은 교감신경절 수질의 nonchromaffin cells에서 유래되는 종양으로 신경아세포로부터 신경절세포로의 일련의 연속적인 분화를 보인다. 신경아세포종은 미분화성 신경아세포를 닮은 세포로 구성된 종양으로 중추신경종양을 제외하고 어린아이에서 가장 흔한 악성 종양이며 부신수질에 호발한다. 신경절아세포종은 신경절세포와 분화된 신경아 세포로 구성된 종양으로 신체 여러곳에서 발생하며, 특히 후종격동에서 호발한다.

연자들은 최근 세침흡입검사로 진단한 14개월된 남아의 부신수질 신경아세포종과 2세된 남아의 후종격동 신경절아세포종을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세침흡입검사상 신경아세포종의 종양세포들은 크기가 비교적 작으며 둥글거나 타원형으로 세포경계가 불분명하였고, 종양세포들이 괴사성 배경속에 개개로 흩어져 있거나 서로 모여 2차원적인 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이 종양세포들의 크기와 모양은 비교적 균일하였고, 세포질은 거의 없었으며, 핵은 과염색성이었고 핵소체는 없었고 세포들 사이를 가는 섬유성 물질이 둘러싸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신경절아세포종의 세침흡입검사소견은 신경아세포종에서 관찰되었던 종양세포들과 함께 풍부한 분홍색 세포질을 가진 커다란 세포들이 함께 관찰되었으며, 이 세포들의 핵은 둥글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핵소체는 과염색성이며 한개 또는 여러개의 핵소체를 갖고 있었다.